

광주 남구청 리모델링 감사 청구 공방

김광수 구의원 '왜 감사청구?' 지적에 남구 '불쾌'

한동안 잠잠하던 광주 남구청사 사업 감사원 감사 청구 책임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남구 남구의회의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감사 청구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다. 이미 묻힌 줄 알았던 책임 공방이 다시 재현되자 남구청은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2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전날 김광수 남구 의원은 구정질문에서 작성한 듯 남구청사 위탁개발비 상환 문제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위탁개발비 상환 문제를) 위탁기간 연장으로 해결하는 대신 282억원의 분할상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라며 남구청의 감사 청구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남구는 2011년 낡고 좁은 봉선동 청사 이동을 위해 주월동 백운로터리 인근에 빈 공간으로 남아 있던 옛 화니백화점 건물을 105억원에 매입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캡코)와 개발위탁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따라 캡코는 301억원을 들여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위탁개발비 301억원은 리모델링이 끝난 2013년 3월부터 지하와 지상 1~4층 상가 임대 수익을 통해 2034년까지 22년간 회수하기로 했다.

공실률 증가 등으로 개발비용 회수에 위험부담이 발생하면 가장 5년까지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남구청 입장에서 105억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지하 6층에 지상 9층의 건물을 매입하고 300여억원의 리모델링비를 최대 27년간 임대수익을 통해 분할상환하는 '최고의 계약'이었다.

문제는 공실률이 70%가 넘는 등 임대수익이 예상보다 저조하면서 불거졌다. 임대수익이 낮자 양측은 위탁개발비 부담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캡코는 남구청에 책임을 요구하며 지난해 6월 공문을 보냈다. 지금과 같은 임대수익으로는 위수탁 계약이 끝나는 2035년까지 청사 리모델링 비용과 이자비용 등 총 369억원 중 87억원 가량만 회수가 된다며 나머지 282억원을 분할상환하거나 위수탁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계약서대로 한다면 남구는 지금 당장 분할상환할 의무도 없고, 위수탁기간을 연장해주면 된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새로 취임한 김병내 구청장은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위탁개발비 상환책임은 남구에 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논란이 일자 남구는 수탁기관인 캡코의 책임과 사업구조를 다시 한 번 살펴달라며 재심의를 청구했다.

김 의원은 "캡코가 공문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상환

합의를 요구한다'고 명시했고, 이때 남구는 마땅히 위탁기간을 연장해야 했다"며 "공익감사로 원하는 결과도 얻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 지적에 전병관 남구 회계과장은 "남구는 22년 동안 임대 공간을 임대위탁기관인 캡코에 주고, (개발비용 회수가 안되더라도) 5년만 더 (임대공간을) 주면 책임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남구 공무원들의 대세 의견이라고 확신한다"며 "청사에 들어간 개발비용에 대해 남구 책임은 없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전 과장은 또 "위탁개발비는 앞으로 20년 동안 관리비를 제하고 매월 1억5000만원의 임대수익을 만들어 낸다면 충당할 수 있다"며 "법적 하자 치유와 임대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의회와 집행부, 주민들이 합심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 모자랄 시점에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는지 참 아쉽고 마음이 안 좋다. 2차 감사청구(재심의 청구)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사 문제)가 다시 한번 회자되는 건 참 안 좋다고 생각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어떻게 좋은 기업을 유지할 것인지, 상가가 활성화 되면 (직원들이 사용하는) 지하주차장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공리해야 할 때"라면서 "그러면서 캡코의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전하게 대피하라 2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에서 열린 2019 신분당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폭발물 테러로 인한 역사화재 상황을 가정해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목포 요양병원서 22명 법정감염병 집단감염

목포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이 법정감염병에 집단 감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22일 목포시보건소 등에 따르면 목포 한 요양병원에서 지난달 16일부터 10월21일까지 환자 19명(전원조치 1명 포함)과 요양보호사 3명 등 총 22명이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CRE)에 감염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일 법정감염병 신고시스템 전산상 해당 요양병원의 CRE 감염자수가 5명을 기록하자 역학 조사에 착수, 환자들을 격리하고 접촉자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CRE는 카바페넴 계열을 비롯한 거의 모든 항생제가 듣지 않는 대표적인 슈퍼박테리아로 발열과 폐렴증상이 나타나며 요로감염, 폐렴, 패혈증을 유발한다.

CRE는 의료기관 내 위생·감염 관리 등에 따른 감염병으로 해당 요양병원에서 주로 중환자실과 장기입원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 사이에서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당 요양병원은 지난달부터 다수의 환자들이 감기 증상을 지속해서 보이자 추가 검사를 진행하던 중 CRE를 발견,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해경, 기름 유출 후 도주 선박 검거

기름을 유출한 후 도주한 60대 예인선 기관사가 범행 5일 만에 해경에 붙잡혔다.

22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9시47분쯤 전남 여수시 돌산 계동 인근 해상에 설치된 어장에 기름이 유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즉시 방제정과 유관기관 선박 등 4척을 동원, 펜스형 흡착제와 방제 기자재 160kg을 이용해 4시간만에 방제작업을 마쳤다.

해경은 용의 선박 중 지난 5월 오염사고 전력 있었던 134톤급 예인선 J호를 발견, 해양오염사고 전문 조사관 2명을 파견해 수사 4일만인 지난 18일 J호 기관사 A씨(69)를 붙잡았다.

인천공항 보안요원, 상가 계단서 음란행위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한 보안요원이 여성이 지나다니는 상가 계단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인천공항공사와 인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보안경비요원 A씨는 지난 20일 오전 9시쯤 인천시 중구의 한 율동촌 상가 계단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다른 보안요원 B씨는 지난 17일 밤 10시45분쯤 인천 중구의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리고 경찰조사 과정에서 소란까지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사는 오피스텔 비번 누른 남성 해프닝

최근 서울 신림동 원룸 미행 사건으로 여성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대전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단순 해프닝으로 끝났다.

17일 대전유성경찰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대전 유성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여성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께 누군가 자신의 집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를 듣고 지난 10일 경찰에 신고했다.

CCTV 확인 결과 한 남성이 핸드폰과 A씨 집 문을 번갈아 보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기려는 모습이 확인됐다. 또 문이 열리지 않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리를 떠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대구에서 놀러와 같은 오피스텔 2동에 사는 친구 집을 가려고 하다 1동의 같은 호수인 A씨의 집을 친구 집으로 착각, 친구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보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민중당 광주시당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책임자 처벌하라"

민중당 광주시당이 22일 국정감사에서 '뽑았이 채용', '아빠·삼촌·남친아빠 찬스' 등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전남대학교 병원에 채용비리 근절을 촉구했다.

민중당 광주시당 청년위원회는 이날 오후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대병원 사무국장은 이 땅의 청년들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아들과 조기를 넘어 아들의 여자친구까지 채용시켰을까"라고 되물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청년들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부정입학,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부정입사, 조국 전 장관 딸의 각종 특혜 등 비리와 불공정함으로써 점철된 사회에 분노했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채용비리는 결코 한 기업이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아울러 "바늘구멍보다 좁다는 청년취업의 문 앞에 지긋지긋한 채용비리는 뿌리뽑아야 한다"며 "무능한 병원장과 사적이익을 위해 채용비리를 저지른 아비한 사

뉴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